



2026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초등고학년(4~6학년)

제 목

어? 잘못됐어!

“엄마, 빨리! 우체국에 전화해 봐!”

우체국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다급하게 엄마를 불렀다. 방금까지는 친구가 생일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 나 호수를 잘못 적은 것 같아.”

엄마와 함께 메모해 둔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정말 호수 하나가 틀려 있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 놀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알려 주던 친구였다. 마지막 날 교실에서 인사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괜히 허전했다. 전학을 간 뒤에도 친구 생각이 자주 났고,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했다.

시간이 흘러 친구의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 생일에는 꼭 선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굿즈를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다. 새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생일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편지도 정성껏 썼다.



며칠 뒤 엄마와 함께 우체국에 갔다. 창구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영수증까지 받자 마음이 놓였다. 이제 내 선물도 친구를 향해 출발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설레었다. 그런데 우체국 문을 나와 몇 걸음 걷는 순간, 주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잠깐… 호수가 맞았나?’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호수를 잘못 적어 놓은 것이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떡하지?’

친구가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다른 집으로 배달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우리는 바로 접수했던 우체국으로 연락했다. 직원분은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시더니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아직 출발 전이라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분은 주소를 바로 수정해 주셨고, 내 선물은 다시 친구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친구의 문자를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고, 이내 미소가 번졌다. 친구가 기뻐했다는 사실도 좋았지만, 내 마음이 무사히 전달되었다는 것이 더 기뻐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주소 한 글자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주소는 단순히 숫자와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수 하나만 달라도 내 마음은 친구에게 닿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무언가를 보내기 전에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우체국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른다. 작은 호수 하나를 고친 일이었지만, 사실은 친구를 향한 내 마음을 다시 찾아준 일이었다.

우체국에서 출발한 것은 선물 상자 하나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친구를 보고 싶었던 마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 오래도록 이어지고 싶은 우정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작은 하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어? 잘못됐어!” 하고 놀랐던 그 순간은 한 글자의 소중함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는 우체국의 따뜻한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